

《花田別曲》의 理解

金 基 卓

| <目 次> | |
|----------------|-----------------|
| I. 序 論 | III. 作品의 性格 |
| II. 作家와 社會의 背景 | 1) 内容의 兩面性 |
| 1) 作家의 略傳 | 2) 自庵의 漢詩와 現實認識 |
| 2) 社會의 背景 | IV. 結 論 |

I. 序 論

15C末 16C初는 朝鮮時代를 通하여 道學이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집권자의 指導理念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道學政治를 具顯하고자 하는時期다.

自庵 金詠(1488~1534, 成宗 18年—中宗 29年)는 中宗때 弘文館 副提學을 지낸 당시 儒學者로서, 1519年 己卯土禍 때 참화를 입어 南海絕島에서 14年間 귀양생활로 불우한 生을 보면 人物이다.

《花田別曲》¹⁾은 高麗 叙景體歌²⁾ 형식의 노래로서 그가 14年間(1519~1533) 보낸 調所地 南海에서 지어진 作品이다. 이 作品은 지금까지 傳하는 叙景體歌中 유일하게 流配地에서 創作된 노래로서 다른 作品에서 볼 수 없는 당시 現實에 대한 時代性을 띤 作家의 内心이 잘 나타나 있다.

敘景體歌의 研究는 대부분 全體的인 研究였지 作品의 個別的인 논고는

1) 《花田別曲》의 〈花田〉은 南海縣의 郡名이다. 「轉也山, 海陽, 轉山, 花田 輸山」(東國輿地勝覽 卷三十一 南海 郡名條)

2) 摘稿: 景幾體歌의 性格考察「嶺南語文學」第8輯, 大邱, 嶺南語文學會 1981, pp. 4~7.

琴基昌: 「榆林別曲」에 關한 研究. 「韓國語文論叢」(又村姜馥樹博士 回甲紀念論文集), 大邱, 1976, p. 305.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³⁾ 배체로 叙景體歌의 作品 26 편은 士大夫 文學으로서 그 内容을 아부성과 自己파시, 宴樂, 遊樂 등의 主題面에 비중을 두고 있어 詩歌自體가 지니고 있는 作家의 内心를 파악되지 못한 것 같다.

《花田別曲》은 귀양지의 生活을 通하여 創作된 만큼, 作品 속에서 자신의 現實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노래한 것인가를 알아 보는 데 주된 관심으로 삼고자 한다.

II. 作家와 社會的 背景

1) 作家의 略傳

金綵는 光州人으로 字는 大柔, 號는 自庵이다. 半년에는 自號를 栗谷, 痘叟라고 하였다.

曾祖의 謂는 禮蒙으로 禮曹判書였고, 贈謚는 文徵公이다. 祖父는 譚를 性源이라 했으며, 官은 成均館司藝로 贈吏曹叅判이었다. 父는 譚가 季文으로 大興현감을 거쳐 贈承政院左承旨이었고, 母親은 丹城縣藍 全義李氏李兼仁의 嫪님이다.

金綵는 成宗 19 年(1488) 9 月 28 日 漢都 東部 燕窯坊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六歲부터 「石榴」라는 漢評를 짓기 시작하고 타고난 粿性이 어른스러웠다고 한다. 그후 十六歲되는 연산 9 年에 長樂官記文으로 漢城試에서 장원을 하였고 二十歲에 中宗 2 年 中司馬試의 兩科에 壯元 급제하였다. 이때 考試官이 公의 生員試卷에 批點하면서 “韓退之의 作風에다 王羲之書體로다”라고 評하였다.⁴⁾

3) 지금까지 景幾體歌에 관한 個別作品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나 종합적인 연구논문들은 많이 발표되었다. 그중 중요한 연구성과로는 李明九: 高麗歌謡의 研究(서울, 新雅社, 1973), 金倉圭: 別曲體歌研究 (1) (2) (3), 국어교육연구 3, 5, 6,(대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회, 1971, 73, 74)과 別曲體歌의 普遍的性格考察, 白江 徐首生博士 還甲紀念論叢(대구, 1981), 그리고 士大夫詩歌의 自己誇示樣相, 教大春秋 13집(대구교육대학 1979), 金文基: 景幾體歌의 総合的考察, 白江 徐首生博士 還甲紀念論叢(대구, 1981), 琴基昌「翰林別曲」에 관한 研究, 韓國語文論叢(대구, 1976), 趙東一: 景幾體歌의 簡素적 性格, 학술원 논문집 15輯(서울, 학술원, 1972), 成昊慶: 景幾體歌의 構造研究(서울大 碩士論文, 1980), 李鍾出: 景幾體歌의 形態의 考察, 한국언어문학 12집(학국언어문화회, 1974), 金甲起: 고려가요의 제동분류, 한국문학연구 3집(서울, 동국대학교 藝術系, 1980) 등이다.

그 후 中宗 8 年(1513) 26 歲의 나이로 別試 第二科에 及第한 以後 弘文館 正字兼 春秋館 記事官, 弘文館博士, 承文院 弘文館校理, 吏曹佐郎, 司諫院 獻納職을 역임하였으며, 中宗 13 年 以後 流配되기까지는 工曹와 禮曹, 吏曹正郎을 지내고 弘文教理 및 應教兼 春秋館 編修官, 藝文館應教, 承文院 校勘, 司諫院 司諫兼 成均司成, 掌樂院 正知製敎를 지내고, 中宗 14 年에는 弘文館 直提學兼 編修官, 藝文館 應教, 承政院 同副承旨겸 春秋官 修撰官, 左副承旨, 右承旨, 弘文館 副提學 知製敎兼 經筵叅贊官, 春秋館 修撰館을 지내다가 이해 11 月 16 日,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의금부에 체포되면서 南海로 귀양 보내졌다.

이때 金綵는 士禍에 직접적인 主動 人物은 아니었지만 己卯各人으로 연루되어 14 年間의 고독한 流配生活을 보냈다. 中宗 28 年(1533) 46 歲 때 풀려나 故鄉으로 돌아온 이듬해 옛職帖을 다시 받았지만 47 歲의 일기로 禮山에서 죽하였다.

그 후 宣祖 24 年(1591) 公이 死後 57 年만에, 同年 5 月 22 日에 中宗戊寅(1518) 때 南衰 등이 中國歷史에 우리 나라 宗室의 系統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려 갔을 때(宗系辨誣使節) 公이 撰한 表文을 가지고 宣祖에게 請하여 光國原從功臣一 等에 參錄되고, 父, 祖父, 曾祖父에게도 追爵되었다. 公은 嘉義大夫 吏曹叅判兼 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 同知經筵, 의금부 春秋館成均館事가 贈職되었다.

金綵는 詩賦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公이 音律에 밝았기에 掌樂院 樂正이 되었다. 한편 魏晉의 鍾王筆法(魏代鍾繇과 晉代 王羲之)을 본받았기에 筆力이 강健하여 自成一家하여 『仁壽體』라고 불리워지면서 그 당시 公의 친필이 中國에까지 알려졌다.⁵⁾ 그리고 그의 詩風은 道學爲主로서 詩는 宛하고 唐風을 骨格으로 삼았으며,⁶⁾ 지금 傳하는 漢詩는 五言 絶句十七首 및 七言 絶句三十四首를 비롯하여 五言 長篇二首까지 合하여 모두 76首가 있다. 그 외에, 古時調 5首와 南海 流配中 作家의 나이 38 歲부터 44 歲 사이에 지어졌다고 짐작되는 叙景體歌 《花田別曲》 한편이 傳하고 있다.

4) 「考官閱卷歎賞 批其卷曰退之作羲之書 遂擢置兩魁 國朝所罕也」(自庵集·自庵金先生墓誌)

5) 「公筆力強健摹鍾王嘗聞爲華人所購絕不書故罕傳於世」……(自庵集·流竄條)

6) 「詩宛有有唐風骨 使假之 以年輪而不息 廓而大之則茲所致業 豈其稅穧所哉」(自庵集·詩帖條)

2) 社會的 背景

文學作品이 文學으로 生命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現實의 이해에 있기 때문이다. 現實을 인식하는 人間으로서의 本性은 특히 한계 상황에서 自覺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流配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人間의自我는 어떤 方法으로 作品속에 表出되며 반영시켜지는가에 중점을 두고자 16C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作家의 自我意識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金縉가 활동한 당시 士林들의 政治的 思想과 社會的 背景을 통해 作家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 같다.

中宗 14 年(1519)에 中宗反正功臣의 僞勳削除事件으로 말미암아 己卯士禍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士禍의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中央政界에 진출한 士林派 관료들과 舊勳派 관료들 사이에 반목과 대립에서 나온 것이다. 中宗은 南袞·沈貞·洪景舟들의 밀고를 받아들여 士林의 趙光祖, 金淨, 金湜, 金縉 등을 제거하려는 政治的 罷事를 일으켜서 諸賢 50여명이 연루되어 국문을 당하였다. 이때 金縉는 말하기를,

「臣의 나이 32 세 되도록 天性이 또한 본래부터 용렬하고 우둔하여 다만 古人과 師友間의 서로 도우면 일을 사모하여同志의 선비들과 고류한 것 뿐입니다. 人物의 進退에는 下類가 없고 착한 바를 좋아하고, 不善함을 미워함에 한갓 公論의 是非를 믿었을 뿐입니다. 빛이 國論을 謔激시키고 조정의 政事를 顛倒하려 한 것은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한 것은 臣의 뜻일 따름입니다.」⁷⁾

라고自身의 출직한 心情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文集에 실린 公의 글은 당시 道學을 주장하는 趙靜菴의 思想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道學思想의 이론가요, 至治主義의 行動人으로 일컫는 趙光祖는 그 당시 真理를 為한 政治와 理想社會의 具現을 도모하다가 38 歲의 나이로 己卯士禍 때 희생당하였다. 이 당시 金縉는 己卯八賢 등과 더불어 趙靜菴의 강력한 道德的 優理意識을 따르고, 理想主義의in 社會建設의 동참자로서 士林政治에 참여하였다가 禍를 입게 된 것이다.

16C 道學은 天理를 보편적 대지 관념적 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心性에서 天理를 드러내고, 이를 個人的 行爲와 政治의 教化에 實

7) 「翰問供曰 臣三十二 淮本庸愚 只慕古人 師友之助 與同志士交遊耳 進退人物非下類 所爲善者好之 不善者惡之 待恃公論 相與是非而已 朋比謗激國論 顛倒朝政曰非非臣之情」(自庵集 流竄條)

現하려는 修己治人·正己物正의 유교적 根本理念과 行道垂教의 실천의지를 内包하고 있었다. 따라서 趙靜菴도 天과 人이 理로서 一貫되고 君과 民은 道로서 一貫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理를 살피고 道를 따름으로써 天人과 君民은 조화하고 일치하는 道學의 理想을 제시하였다.⁸⁾ 그리고 나아가 君主의 獨治를 반대하고 大臣들에게 맡겨 政治해야 治道가 수립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당시 훈구세력의 미움을 싸고, 계략에 물려 己卯年の 士禍가 發生된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 趙靜菴을 비롯한 당시의 士林들은 〈古道에 힘쓰면서 保民을 根本으로 삼고자〉하는 至治에 핵심하였고 아울러 선비들의 닦은 학문과 유학으로 회포를 떠서 生民에 補益하려는 것이 전부가 될 것이다. 이같은 士林의 基本精神에 동조하여 뜻을 같이 한 사람은 바로 金縗 자신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특히 그는 趙光祖가 말하는,

「所謂交結往來者 皆所以講論修己治人事君事親之道 則此乃國家之福也」⁹⁾

이라는 뜻에 士林들과 핵심하여 政事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당시 士林의 정치적인 생각은 매우 전전하면서 나라를 위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士生斯世 所恃者君心而已 妥料國家病痛 在於利源 故欲新國脉於無窮而已頗無他意」¹⁰⁾

라고 한 것은 그의同志들이 기묘년(1519) 11月에 투옥되었을 때 조정암이 中宗에게 올렸던 供辭의 내용이다. 오직 王을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근심 걱정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때 일어난 士禍는 南袞을 中心한 훈구세력과 趙靜菴을 中心한 士林세력 간의 정치적인 권력다툼이라기보다는 사회적·사상적 背景을 더듬어 볼 때君子와 小人의 對立이였을 것이고, 天理와 人欲의 갈등이라는 道學의 측면에서 더욱 깊은 의의와 진실성이 여러 문헌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당시 士林의 정신세계는 대단히合理的이고倫理的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道學을 하나의 意識속에서 만족하는게 아니라 實踐道德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人間의 지식과 더불어 行動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난다.

8) 靜庵集 卷二 謁聖試策 「天與人本乎一，而天未嘗 無其理於人 君與民本乎一，而君未嘗 無其道於民 故古之聖人，以天地之大，兆民之衆，爲一已，而觀其理而處其道」

9) 靜庵集 卷 3, 參贊官時啓二條 인용.

10) 靜庵集 卷 2, 獄中供辭條 인용.

士林들의 이러한 정신은 당시 社會를 쇄신하고자 하는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사회의 思想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조의 성리학이 이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때 趙光祖를 中心한 士林들의 思想은 政治的인 權力의 도모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人間의 의리를 강조하고 人間의 倫理性과 道德性을 심화시켜 神聖化하였기에 〈道學〉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¹¹⁾

金綵도 당시 士林세력의 일원으로서 항상 趙光祖와 金冲庵등과 함께 道學으로 儒道治世하기를 염원하였던 人物이다. 그의 詩風도 항상 道學爲主로서 文集에 傳하는 時調작품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그의 詩帖에 보면,

「如趙靜菴 則一意道學 不暇他才藝 金冲庵以下旁及文章矣, 諸賢之論以爲文則漢詩則唐 眞草則晉 人物則宋 以是視法而爲終身俛焉之地 亦盛矣哉」¹²⁾

라 하였다. 이 편은 곧 金綵自身이 쓴 詩帖으로서 道學에 對한 평소 생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는 항상 趙靜菴의 뜻에 따르고, 오직 道學에 一念하였기에 다른 것에 對하여 생각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諸賢과 文章을 論해도 항상 文은 漢이요, 詩는 唐이요, 眞草(筆)는 晉이요, 人物은 宋나라의 성리학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그 法을 終身토록 지킬 것에 힘을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의 天性 또한 不義와 타협할 줄 모르고 絶高하여 실천 도덕이 강하여 어려서부터 發憤力行에 절차 탁마하는 人物이 였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中宗祖에 文治에 뜻을 세워 一世를 쇄신하고자 趵靜菴·金冲庵과 上下가 되어서 王의 신망을 얻고 堯舜之治로 君·民을 道學으로서 興起시키고자一身을 들보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己卯士禍로 流配를 당하고 13年 째 되는 丙戌·戊子 양년에 모친과 부친을 잃는 불운이 겹쳤다. 그후 刑量이 줄어 臨陂縣으로 移配되었다가 癸巳年에 석방되고 다음 해에 職牒이 還授되었지만 病으로 苦生하다가 嘉靖 13年 11月에 향년 47세로 生을 마친 불우한一生이였다.

이와같이 金綵는 士林의 一員이 되어 儒道治世를 하였지만 끝내 뜻을 폐지 못하고 불운이 겹치기만 하였다. 아울러 그는 많은 글도 남기지 않

11) 琴章泰, 趵靜菴과 朝鮮朝의 선비精神, 韓國學報 10집(서울, 一志社, 1978), pp. 180~183.

12) 自庵集, 詩帖條 인용.

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漢詩와 몇편의 글에서 生存 당시의 현실의 갈등과 그의 心情을 엿볼 수 있었고, 이것이 뒷반침이 될 때 《花田別曲》의 作品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I. 作品의 性格

1) 作品의 内容

《花田別曲》은 自庵集 卷二 別曲條에 실려 있는데 意味上 네 단락으로 나누어 독립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 作品은 己卯士禍로 인하여 南海로流配되어서 지은 것인데 創作 時期는 대체로 作者의 나이 41 歲(중종 23 年)에서 臨陂로 移配되기 전 44 歲(중종 26 年) 사이로 보고자 한다. 그의 文集에 실린 作品을 그대로 옮겨 보면,

①○天地涯 地之頭 一點仙島

左望雲 右錦山 巴川高川(봉내고내)

山川奇秀 鍾生豪俊 人物繁盛

偉 天南勝地景 此 엇더 흥닝있고

風流酒色 一時人傑(再唱)

偉 南조차 엿문이신고

②○河別侍 芷芝帶 齒爵兼尊

朴教授 손자이 醉中呻吟

姜論雜談 方熏軒睡 鄭機飲食

偉 品官齊會景 此 엇더 흥NING있고

河世涓氏 발버 훈風月(再唱)

偉 唱和景 此 엇더 흥NING있고

③○徐玉非 高玉非 墨白顧殊

大銀德 小銀德 老少不同

姜今歌舞 緑今長鼓 바란學非 소송玉只

偉 花林勝美景 此 엇더 흥NING있고

花田別號 名實相符(再唱)

偉 鐵石肝腸이 라도 아니 굿거리 엉더라

④○漢元今 以文歌 鄭韶草笛

或打鉢 或扣盤 間擊盞臺

偉 發興景 此 엇더 흥NING있고

姜允元氏 스로 맹당 소리(再唱)

偉 득피야 즘드로리라

⑤○綠波酒 小麴酒 麥酒濁酒

黃金鷄 白文魚 柚子盞 貼匙臺에

偉 마득브어 勸觴景 과 엇더호닝잇고

鄭希哲氏 過麥田大醉(再唱)

偉 어너께 술풀지기 이실고

⑥○京洛繁華 1 애 너는 불오냐

朱門酒肉이야 너는 료한냐

石田茅屋 時和歲豐

鄉村會集이야 나는 료하 흐노라

이 作品은 여섯 개의 聯으로 한 편을 이룬 것이냐, 또는 여섯개의 독립된 노래를 別曲이라는 음악 형식에 맞추어 한 제목으로 묶어낸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치 않으나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다. 作品이 하나의 主題로 일관되어 있느냐, 또는 다른 여섯 개의 小主題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作品의 해석도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의 作品 全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作者는 여섯 개의 연을 다시 ①·②연과 ③·④연, 그리고 ⑤연, ⑥연을 각각 독립된 한 뮤음으로 하여 4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듯 생각하기에 이 作品은 漢詩 作法의 전통적인 四分法 구성인 起·承·轉·結의 형식으로 表現된 것 같으나, 이보다는 意味上의 4 단락으로 나누어 表現하므로 특이하다고 본다. 《花田別曲》도 짧은 노래 형식에 속하면서도 노래의 각 聯은 독립된 주제를 갖고 있으며, 각 연의 주제의 性格이 共通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作品으로 제시되고 있는 듯하다.

《花田別曲》의 여섯 개의 聯에 나타난 主旨를 要約하면서 4 단락으로 意味를 아울러 살피기로 하자.

①연에서 天南勝地景에 人物이 变성하다. / 勸觴(지리적 배경)와 品官齊會(인물)

②연에서 品官齊會景에 詩唱을 하다. / 의 唱和(1 단락)

③연에서 花林勝美景에 歌舞를 하다. / 妓女들(가무)과 發興현장(I)(2 단락)

④연에서 각종 악기 소리에 心醉하다. /

⑤연에서 술과 안주로 술풀을 극복한다. / 勸觴(景)현장(II)(3 단락)

⑥연에서 京洛繁華보다 鄉村會集이 좋다. /一心懷(심리적 배경)(4 단락)

이렇게 요약한다면 作品에 나타나는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운율과 詩想은 가셔버리지만, 作品의 内容에 담긴 意味의 상관성을 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다.

이 作品에 나타난 自然에 대한 인식은 ①연에서 잘 노출되고 있다. 叙景體歌의 共通된 형식처럼 항상 地理的 背景이 소개되면서 傑出한 人材의 탄생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다. 《花田別曲》도 예외는 아니다.

天地涯 地之頭 一點仙島

左望雲 右錦山 巴川高川(봉내고내)

이라 하여 花田의 位置를 天南勝地景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山川奇秀가 곧 人傑의 出現을 ②연에서 시사해주고 있다.

〈河別侍〉〈朴教授〉〈姜綸〉〈方煦〉〈鄭機〉〈河世涓〉등은 귀양지에서 사귄 風流客으로서 詩唱을 하며, 지난날의 品官齋會景을 다시 연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곳은 화려한 서울은 아니지만, 天南의 勝地 花田에서 일시 사귄 벗들과 함께, 品官의 詩唱하는 唱和景, 또한 그 옛날의 것보다 더 재미있고 부럽지 않다는 과시의 表現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①연과 ②연은 의미상의 첫째 단락으로서 天南勝地의 지리적 배경과 風流客들이 벌인 品官齋會의 唱和景이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연의 〈徐玉非·高王非〉〈大銀德·小銀德〉〈姜今·綠今〉등 妓女들의 등장으로 花田은 名實相符한 花林勝美景을 歌舞로서 더욱 어울리게 하고 있다. 妓女들의 歌舞에 장단 맞추고자 ④연에서는 風流客들의 각종 악기 소리로 흥취를 돋우고, 서로 어울려 搖頭輾身으로 춤을 추는등 갖가지 醉態를 보이므로 최고의 發興景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姜允元氏·스르릉당 소리〉의 가야금 연주에 모두 心醉해서 잠시 發興을 진정시킨다. 이와같이 ③·④연의 둘째 단락은 妓女들의 歌舞와 品官者의 發興景에 그들의 風流現場을 엿볼 수 있다.

⑤연의 〈綠波酒·小麴酒·麥酒·濁酒〉의 각종 술과 〈黃金鷄·白文魚〉의 안주로 廉觴하는 景은 곧 앞의 ③·④연의 연속된 風流現場으로서 〈I〉로 한다면, 세째 단락에 속하는 ⑤연은 風流現場 〈II〉로서 서로 연결되어 진다고 본다.

風流現場 〈I〉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現實의 고독과 불안, 슬픔을 잠시 잊기 위해 妓女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發興景이라 한다면, 風流現場 〈II〉에서 평소 잘 마시지도 않는 각종 술로 한때나마 슬픔을 이기고자 하는 心身의 괴로움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表現으로 재미있는 것은,

「鄭希哲氏 過麥田大醉(再唱)」

으로서, 鄭希哲을 내세우는 作者自身은 이제 밀밭 옆으로 지나기만 해도 취하는 위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취하는 술로 고독을 달래고, 술풀과 峴念의 순간을 지키고자 뜯어는 술도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作者의 心懷를 엿볼 수 있다.

마지막 네째 단락으로 ⑥연에서는 作者가 항상 그리워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故鄉에 대한 心情을 느낄 수 있다. 이제는 〈京洛繁華〉도 부럽지 않고 〈朱門酒肉〉도 싫어한다. 다만 〈時和歲豐〉을 누리는 故鄉의 〈石田茅屋〉에서 生을 누리고 싶고, 때때로 鄉村會集을 통하여庶民들의 소박한 生活에 적응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朱門酒肉과 鄉村의 石田茅屋・時和歲豐이 대조되면서 항상 故鄉의 그리움을 암시하고 있다. 作者는 現實을 諦念하고 제약된 환경에 순응하면서도 異質的인 성격의 두 世界의 대조를 통하여 歸鄉과 現實, 체념과 순응의 양면성을 찾을 수 있다.

이 作品의 ⑤·⑥연에서는 형식상으로 파격이 심하지만, 歌辭에서 찾아볼 수 있는 詩語의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全體的으로 볼 때 話者는 流配地에서 사군 豪傑俊士들과 風流를 즐기면서 자신의 不幸을 감추고 誇示의 자세에 集中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聲의 主旨들은 독립적인 主題를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意味의 상관성을 볼 때 作者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멀리해서 멀쳐버릴 수 없는 어느 한계가 作品의 이면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作者가 區分한 意味上의 단락은 더욱 작자의 뜻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敘景體歌의 다른 作品들도 士大夫들이 風流와 醉樂을 통해 자기 과시욕을 나타내고 있지만 《花田別曲》의 경우, 과시된 노래와 作家의 원초심리는 상반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作家의 현실상황이 罪囚의 몸으로 14年이라는 외로운 절망의 生活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生活中 잠시 詩·酒·樂으로 시름을 잊고자 하는 作家의 생활태도를 엿볼 수 있다. 〈花林勝美景〉 속에 펼쳐지는 화려한 遊樂現場은 연출되고 있지만, 作者의 生活환경과 현실을 비교해 볼 때 醉樂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운 진폭에 비례해서, 곧 이어 되살아나는 作家의 고독과 술풀은 더 크게 心情을 억압해 올 것이다. 그러므로 天南勝地景에서 얻어지는 風流性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 과시욕의 현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단락에 속하는 ③연과 ④연에서는 花田別號에 名實相符하는 花林勝美景과 醉樂發興景은 全篇을 通해서 최고의 결정에 해당되는 遊樂현장으로서 樂에 心醉되고 있다. 이어서 세째 단락 ⑤연에서는 勸酒에 의해 忘念하고자 하였다. 勸觴景을 통하여 作者의 결망과 고독을 달래는 心理的 고뇌를 헤아려 볼 수 있다. ⑥연을 끝으로 〈京洛繁華〉와 〈石田茅屋〉의 異質的 性格의 두 世界를 通하여 作家가 염원하는 바를 알 수 있다.

「石田茅屋 時和歲風」

鄉村會集이야 나는 眾하 促노라」

에서 적어도 話者는 山川奇秀한 自然, 즉 父母를 모시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安住의 땅을 찾고 있다. 실속없는 〈京洛繁華〉는 곧 生產性없는 질시와 권력다툼의 파쟁만 일삼는 〈朱門酒肉〉보다는 〈石田茅屋〉에서 〈時和歲豐〉을 누리고 鄉村에서 生을 마치기를 바라는 것은 作者의 自然스런 소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作者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곧, 과거의 政治 권력다툼에서 패배하여 많은同志들이 참형을 당하고 뿔뿔이 흩으져 流配를 당하며, 이제는 再會할 수가 없고, 再起할 길이 아득하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 흩어져 있는 자기 주위의 동지들도 사라지고 멀어져 갑에 따라 그 고통스런 괴로움과 현실의 갈등을 詩·酒·樂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단이 이 作品의 内容이고 보면 歷史的 背景이 實證으로 뒷받침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귀양지에서는 과거의 희망 찬 理想政治實現을 爲해 심혈을 기울이던 때를 역력히 회고되어 현실의 괴로움과 과거의 안타까움이 더욱 作者의 마음을 고통당하게 한다.

作品《花田別曲》은 이러한 의미에서 金綵自身이 당하는 현실세계의 고통과 과거의同志들에 대한 그리움 등이 엇갈리는 갈등과 서려운 정서들이 한데 응어리져 노래化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作品에서 보는 回顧의 특질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내용을 서술하는 요건으로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現實世界에서自我가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부딪쳐서 투쟁하고 강한 의지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사태에 對한 자아의 主觀的인 풍류적 허세만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힘이 자아보다 크기때문일 것이다. 이때 作

者는 펠연적인 패배를 당하여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현실의 체념과 순응이 작자를 지배하지만, 풍류성으로서 과시 위장하려고 든다. 그러나 流配地의 현실은 항상 고독에 차 있어 매양 鄉村의 會集을 그리는 것이 역력하다. 作者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독으로 인한 괴로움은 현실세계에 對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에 대하여 고통을 잊고자 하는 의도적인 풍류성의 반응만 보인다. 여기서 대립과 갈등 문제의 노출을 피하고, 그것들을 외면한 채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자 遊樂性의 風流를 즐기고 있다. 즉 현실에 순응하며 조용히 鄉村을 그리는 심지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이 당시 정치권력과 당파의 영향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시대의 현실적인 삶속에서 빛어지는 流配文學의 한 본성일 것이다. 〈己卯士禍〉의 화를 당한 作家의 生의 어려움은 현실 뿐만 아니라 心理的으로 일종의 영원한 비극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歷史的 사실로서 作家의 불행을 초래케 했다고 본다. 이러한 歷史的 사실의 배경속에서 나온 《花田別曲》을 비롯한 당시의 시조 가사 중의 流配文學에서는 임금에 對한 그리움, 고독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그 수단으로 詩·酒·樂의 풍류로 체념과 순응으로 일관된 것이 主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自庵의 漢詩와 現實認識

敘景體歌 26 편을 전반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發生한 《한림별곡》《판동별곡》《죽제별곡》은 모두 당시 士大夫 文人们的生活相과 遊樂現場의 文學으로서 風流와 醉樂의 世界를 묘사하면서 은연중에 自己誇示를 두드러지게 表現시키고 있다. 이러한 詩歌가 李朝에 와서 初期의 新興士大夫들에게도 口味에 맞아 宮中歌樂에도 사용되고 있었으며, 儒者流·士大夫 사이에도 화려한 운율로서 많이 즐겼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李朝에 와서도 새로운 曲이 없이 내용만 달리하여 고려 《한림별곡》류의 初期의 형식과 운율을 그대로 답습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李朝전국을 頌壽·讚美하는 노래의 한 형태로서 國家의 理念과 佛教思想을 노래하고 倫理道德을 주제로 한 作品들이 많았다.¹³⁾ 여기서는 麗代의 士大夫 生活相과 個人의 情趣를 노래한 風流性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15末~16C에 와서 《花田別曲》을 비롯한 《불우한곡》, 《금성별곡》, 《판산별곡》, 《상대별

13) 琴基昌: 翰林別曲이 關한 研究, 「韓國語文學叢(又村 姜馥樹博士 回甲紀念論文集)」, 大邱, 1976, pp. 345~348.

곡》, 《九月山別曲》, 《獨樂八曲》등이 個人的인 叙景과 情趣를 노래하였지만 麗代의 《한림別曲》류와 같이 風流性의 폭이 넓지 못하고 형식상의 파격이 심해 흥내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은 곧 李朝의 전국과 함께 새로운 詩歌 형태인 樂章體가 發生하고, 時調의 발달과 함께 15C에 와서는 歌辭의 發生으로 叙景歌의 형태적 기능이 더욱 약화되었을 것이다. 특히 선조대에 나온 周世鵬의 4편의 도덕가류나 獨樂八曲의 경우 거의 歌辭와 辞說時調로 탈바꿈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의 파격이 심하고 長形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⁴⁾

《花田別曲》도 全篇을 통하여 볼 때 ⑤·⑥연에서 형식상으로 파격이 심하게 작용되고 있지만 타作品보다 詩語의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花田別曲》은 謫所地 南海에서 창작된 叙景體歌中의 유일한 流配詩歌다. 流配文學은 특히 李朝에 와서 시조와 가사작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李朝中期부터 당쟁의 결과로 빚어진 유배文學은 어디까지나 流配地에서 겪은 體驗을 바탕으로 하여 죄인의 입장에서 창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作品속에는 流配的인 상황에 적합한 생활환경을 中心으로 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현실상황을 그런 文學으로서 時調보다 歌辭형태를 빌려서 자신의 불우한心情을 表現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花田別曲》도 ①연에서 ⑥연까지 文脈의 흐름에서 볼 때 作者는 現實世界에 對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現實환경의 어떤 결과에 對하여 두려움을 감추고 詩·酒·樂으로 체념, 순응하고자 하는 風流的인 面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과거의 어떤 對立이나 갈등의 요인은 現實에 입하여 포기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부터 외면하여 다른 世界 즉 〈石田茅屋〉의 鄉村으로自我를 移行하여 再順應하고 思鄉心으로 回歸하고자 하는 心理作用이 엿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유배생활에서 지어진 漢詩作品중 자신의 신변에 느끼는 고초와 생활상을 표현한 몇편을 골라서 作品의 現實認識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自庵은 남해 귀양지에서 風土病을 얻어 신음하면서 〈閔耆叟〉에게 주는 五言詩에 보면 쓸쓸한 고독감을 느낄 수 있다.

| | |
|-------|------------------------|
| 經歲嬰沈痼 | 세월은 가도 病만 깊어 |
| 閉門陰瘴氣 | 문닫고 바닷독기 막았네 |
| 海覺鴉啼曙 | 갈가마귀 우짖을 땐 바다가 밝은 줄 알고 |

14) 琴基昌: 같은 책, p. 353.

林和鵠鬪曠 耽새 지지귀니 수풀이 더운 줄 알겠다.

(一作鴉鳴知海曙 鵠鬪曠林曠)

不眠歸夢絕 잠못 이워 돌아갈 꿈조차 못꾸고

禁酒旅愁紛 술 금하니(病으로) 나그네 시름 분분키만 하네

何日離衾枕 어느 날 이부자리 떨치고 일어나

登高望北雲¹⁵⁾ 높은데 올라 고향쪽 구름이라도 볼까?

인용한 詩는 四面이 바다로 둘러 싸인 流配地에서 세상과 不和한 金縲의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을 역력히 그릴 수 있다. 그의 몸은 風土病이 들어 신음하면서 언제쯤 自由의 품이 되어서 故鄉에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애태개 기다리고 있다.

詩에서는 나그네의 수심을 읊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나그네는 자기 자신을 가르킨 罪囚의 몸을 말한다. 14年이라는 세월을 기약없이 보내면서 매일 바라다보는 푸른 바다는 그에게는 이제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다. 이제 바다의 찬 물결은 자기에게 풍토병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존재며, 음산한 날의 파도소리, 갈가마귀, 참새의 울음소리에 수심만 가득 채워주는 존재로서 새벽이 되도록 잡 못 이루게 한다. 이는 곧 내부의 갈등과 번뇌에서 방황하는 모습이다. 즉 罪를 엔더 멀리 임금을 떠나 외딴 섬에 왔기에 항상 그는 歸鄉소식을 애태개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政治·社會的 불안정과 의기투합할 수 있는 옛同志가 없는 現實의 영향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謫所地의 고독한 生活속에서 느끼는 서정적인 思鄉의 본성이라 본다.

金縲은 現實의 슬픔과 심리적 갈등이라는 이중의 상황에 있다. 《花田別曲》의 경우도 내면적인 심리적 갈등을 부정하고 현실의 향락과 風流로 위안이 되고자 하나 그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러한 풍류성과 醉樂으로 현실의 고독과 심리적 갈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金縲는 한때 <神仙>의인 삶을 누리는 승려의 生活을 동경하는 뜻을 다음 시에서 엿볼 수 있었다.

流落天涯喜似人 天涯에 경치없이 다니도 似人은 기쁘고

匡山況復舊相親 匡山에서 하물며 옛벗을 만났구려

一軒松月能存道 한칸집 松月에도 道는 거기 있는데

十載詩書媿傭身 10년세월 詩書로 이불 즐겁이 부끄럽구나

15) 自庵集 卷一, 病裡書懷寄贈閔耆叟.

| | |
|------------------------|----------------------------|
| 南極滄茫溟海闊 | 南極은 滄茫하고 濳海는 넓고 |
| 北辰迢遙夢魂頻 | 北辰은 까마득하여 꿈에만 자주 꿨네. |
| 頭流望斷同穿履 | 頭流는 까마득히 멀어 나막신이 뚫리고 |
| 萬里孤舟溟瀛巾 ¹⁶⁾ | 萬里 외로운 배에 두건을 쳐시는 눈물만 흐르네. |

<贍 僧>

自然과 故鄉을 그리는 것은 승려들이 生活하는 삶의 그 이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南海의 自然 속에서 詩·書로 세월 보내는 한가로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10년이 넘는 罪囚의 生活에 그 한가로움도 現實의 자각으로 生活의 거름이 깨트려지고 있다. 과거 宮中生活에서 中宗 임금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고 꿈속에서 자주 뵈올수록 더욱 갈길이 아득하여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流配生活 十年이 넘자 金綵는 귀향의 기대는 점점 멀어만 가고, 결국 自然과 더불어 天涯를 마음대로 떠돌아 다니는 僧을 神仙에 비유하며 동경한다. 결국 罪囚의 몸이 10년이 넘도록 풀릴 줄 모르고, 현실의 부조리한 현상 속에 자신의 이상을 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 갈등과 삶의 유한성을 아는 金綵는 頭流山의 神仙적인 삶을 회구하고 때로는 일체의 것을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道의 경지를 추구하기도 한다.

自然은 영원하며 완전하다는 東洋의 일반적 관념이¹⁷⁾ 그 때 후에 작용되고 있지마는 더구나, 현실에서 맛보면 不和의 이질감, 고독, 번민 등은 자연에서는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조사회에 있어서 自然의 귀의가 사화나 당쟁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며, 그 속에서 정신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였기 때문에 生活의 회구로서 자연관이 나온 것이다.¹⁸⁾ 그러한 예로 尹善道의 《어부사시사》는 自然 속에서 정신적 기쁨과 평화를 얻는 최상의 경지를 表現한 作品이 될 것이다. 그러나 金綵의 漢詩에 나타난 自然是 自然 자체의 아름다움을 表現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自然을 통해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일지고 메미우는 바닷가 山은 가을인데／호리병 술로 痘을 달래고／여지로 정자에 오르네／타향에서 자주 손(客)보냄을 협의로 말재도／이별때

16) 白庵集 卷一, 贍僧.

17) 金忠烈, 東洋思想散稿(沉學道서, 1977), p. 62.

18) 崔珍源, 「自然과 人間存在」, 韓國思想大系 I (成大大東文化研究院, 1973), pp. 217~220.

면 故鄉생 각 떠오르는 것을을¹⁹⁾,

또 <歲暮에 님은 멀리 있고／天涯에 친한이 없네／天地間 진 가을 달밤에／江海에 먼 征人이로세／青鳥는 소식전하기 어렵고／시든 풀은 봄을 모르네／품은 한 어디에다 전하리／고향 그리워하는 痘만 깊어가네.>²⁰⁾,

<한잔 술에 날은 저물고／뜬 인생 바닷멀리 村마음에 있네／올해도 寒食은 그저 지나가는데／벗속에 꽂잎만 어지러이 날리네.>²¹⁾와 같은 表現이 그것이다. 그의 詩는 그외에도 〈送別〉〈思鄉〉〈旅窓〉등의 主題로 이루고 있다.

辛卯年(1531) 5月에 지은 教授 朴綏과의 송별시를 보면,

| | |
|----------------------|---------------------------|
| 知己分携處 | 벗을 ²²⁾ 이별함에 있어 |
| 滄波思不窮 | 창파(世事)에 생각은 끝없네. |
| 天連山勢遠 | 연이은 山勢는 까마득하고 |
| 烟惹樹陰重 | 안개에 숲조차 더 으슥하네. |
| 萬事是非外 | 만가지 일은 是非 밖이라 |
| 百年詩酒中 | 한 편 생을 詩酒中에 넣이네만 |
| 尋常君得此 | 그대가 늘 찾아주는 일 |
| 飄泊媿哀翁 ²³⁾ | 떠도는 신세 부끄러운 이늙은이. |

〈送別 教授 朴綏〉

〈萬事是非外〉와 〈百年詩酒中〉에 보내는 사람은 金綵 자신을 가르키고 있다. 그것은 10 年이 넘도록 자유스런 몸이 되지 못한 자신의 고독한 삶

19) 「葉落蟬吟海嶠山
一壺扶病強登樓
嫌却他鄉頻送客
別時惹超故園愁」

《次韻送別徐允元再任遼歸》

20) 「歲暮美人遠
乾坤長夜月
青鳥難通信
羈懷何處達」

《謫裡贈權正字》

21) 「杯酒雲天暮
浮生瀕海村
今年寒食過
花落雨粉粉」 《書旅窓》

22) 自庵集 卷一, 「送別教授朴綏」

정과 형체를 일컫고 있다. 벗들은 자유스럽게 육지를 드나드는데 자유스런 韓鄉을 생각하는 기대감마저 허물어져 이제는 저 하늘 끝 맞닿는 山勢 같이 아득하고 한낱 희망마저 연기 일어나 둑을 감싸 짙은 그늘에 싸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깊답한 심정이다. 이는 곧 절망과 고독에 싸인 채 자기의 生이 孤島에서 마치게 될 것 같은 자포자기하는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의 고독은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 그는 언제나 故鄉에 돌아가기를 학수고대 한다. 그래서 그는 육지에서 오는 반가운 소식이 올까봐 항상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다음 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 |
|------------------------|---------------------------|
| 思鄉日日上高峰 | 고향 생각에 나날이 높은데 올라 |
| 消息茫茫海嶽重 | 소식은 아득한데 바다·산이 가로막네. |
| 徊盡孺人封藥裹 | 약 다하자 아내는 약첩 보내고 |
| 錠來慈母寄衣縫 | 그속에 이머님이 보내신 의복 |
| 窮途孤詠難憑興 | 궁한 신세 읊조리나 흥일지 않고 |
| 愁處架杯易見功 | 수심에 통음이 功되는 것을 |
| 自分生涯南地老 | 내 스스로 지은 분수로 南에 와서 늙고 |
| 一聲欣聽北來鶯 ²³⁾ | 북에서 오는 기러기 소리에 반갑게 들리는구나. |

베타면 쉽게 바다건너 고향에 갈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는 산과 바다가 가로막으니 이제는 北에서 날아오는 기러기 울음만 들어도 반가운 심정이다.

누구나 쉽게 넘을 산과 건너 갈 바라도 자기가 스스로 지은 罪값에 넘고 건너 갈 수 없는 金線의 자아의식은 世上파의 이질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自然을 表現하되 그 자연은 자아의식을 表現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자신의 슬픈 生의 체험과 고독한 심회를 솔직하고 진실되게 表現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귀양지에서의 金線는 날이 갈수록 자신의 자포자기한 신세한탄을 한시에서 잘 보여 줌으로써 《花田別曲》에 느낄 수 있는 작자의 心情을 출적하게 접근시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외에도 만년의 그의 詩에서 나타나는 슬픈 고독은 현실의 변혁 없이는 즉 사면되지 않고는 해소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면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공간적이며 지리적 비교를 암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독기어린 바닷가에서 흘리는 눈물>과 <석양의 구름과 낙엽지는 가을 나무>를 보

23) 自庵集 卷一, <思鄉>

며 드는 외로운 술잔에 痛苦를 달래고, 〈만경창파에 떠 있는 외로운 배에 두건을 쳐시는 눈물〉과 〈말로 못하는 깊은 회포에 말여기만 기다리네〉 등 등의 詩的 이미지를 通해 思鄉의 客愁를 처절하게 형상화시키고 있다.

金綵의 작품중 순수한 叙景詩가 別로 남기지 않고 있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다. 귀양지에서 보는 自然은 自然, 그 자체의 아름다움도 金綵自身의 고독한 현실에서 볼 때 자연은 자아의식의 투영대상으로서의 意味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의 궁핍한 신세는 詩로 읊었고 수심을 통음으로 잊고자 하였기에 그 리움, 사모, 비판, 회의를 스스로 달래면서 역경을 해쳐나가는 깊은 현실의 체념과 순응이 근본적인 주제라 하겠다. 作家가 끝내 되씹고 있는 체념도 人間事의 모든 것이 때를 만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간 한 때의 화려했던 〈京洛繁華〉나 〈朱門酒肉〉의 生活도 결국 일시적인 영화를 누린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人生의 無常함을 느끼고, 과거의 권력 다툼과 시비의 傷偽를 따진다해도 이 모두 한가지 균원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뜻을 그의 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 |
|------------------------|---------------------------|
| 機幻張皇鼓吹喧 | 기구를 벌어놓고 치고불고 嘉亂하다. |
| 眞形假面眩人魂 | 진짜 도습 가면하여 사람의 혼을 어지럽군대. |
| 眞真假假何須辨 | 진짜, 가짜를 어찌 구별하랴. |
| 真假從來只一根 ²⁴⁾ | 진짜니 가짜니 마지막보면 한 근본에서 나도대. |

〈李密陽宅謙席觀優戲作〉

이 詩는 中宗 20년(1525) 귀양지에서 가면회를 보고 지은 世態를 풍자한 作品이라 생각한다.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外樣은 아주 嘉亂하고 진짜인 것 같으나 진정한 마음은 숨기고 가짜로서 남을 속여 罪를 뒤집어씌우게 하는 당시의 世上人心을 가면극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면회를 벌인 잔치의 현장은 현실과 거리가 먼 遊興으로美化되기는 하지만 좀 깊이 생각하면 現實의 갈등과 삶의 미국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 당시 士禍의 소용돌이 치는 속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따지고 구분한다는 자체가 인식의 혼란만 초래케 되어 비참한 참극을 보게 된다.

이상과 같이 金綵의 漢詩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花田別曲》이 表現하고 있는 의미와 비교할 때 전연 다른 상황을 느낄 수 있다. 다같이 南海의 流配地에서 創作된 것이지만 서로 상이한 면모를 보이

24) 自庵集 卷一, 〈李密陽宅謙席觀優戲作〉

고 있다.

漢詩에서는 作者의 진실된 내부의 심정을 토로한 内向性의 한단면이라 한다면 《花田別曲》에 있어서 風流性으로 나타난 醉樂의 모습은 진실이 아닌 遊戲에서 나온 外向性이라 본다. 内部의 심층에서 우러나오는 真實된 風流는 결코 아니다. 그는 원래 詩와 樂에는 깊은 조예가 있어 장악원의 正樂까지 지낸 바 있지만 술(酒)에 對해서는 人間의 弊害를 주고 그 禍가 미치는 범위는 참으로 크다고 春別殿試作에서 論한 바도 있다.

술은 人間의 常性을 쳐서 五倫과 制度를 어지럽히게 하고, 결국 人間의 性情을 치는 도끼라고 하였다. 聖者를 어리석게 하고 종명한 자를 혼미하게 하고, 용기있는 자를 나약하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문이 되게 하는 것이 술이라고 지적하였다.²⁵⁾ 그러나 이제는 외로운 流配地에서 통음을 하지 않으면 愁心을 잊을 수 없고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아울러 술이 없이는 詩·歌도 興이 나지 않으니 역설적인 行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위 心理的인 자리마꿈(displacement)²⁶⁾에 나온 일시적인 가식행위라 본다.

人間의 精神 가운데 자리잡은 혼돈의 원초 상태에 복귀하고자 하는 内向性(introversion)과 논리, 질서, 윤리의 외적체계에 부합하려는 外向性(extroversion)에서 風流의 낭만과 고전적인 도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생긴다고 할 때²⁷⁾ 金綵의 심리적인 상태를 해아려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볼 때 《花田別曲》은 流配地 生活에서 느낀 現實認識과個人의 정신적인, 즉 心理的인 갈등의 complex 작용에서 作品化된 것이라 본다. 人間의 모든 복합작용의 심리는 열등감, 우월감과 함께 先天的인 本能에 對한 後天의인 경험의 충돌과 억압에서 시작되어 착잡한 심리의 양상이 作品化된 것이다. 그러므로 《花田別曲》은 作品의 外的인 風流성만의 해석으로 전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論旨에 對해 또 하나의, 또는 그 上의 反論理가 전개되어 全體는 일견 혼란된 양상을 띠는 까닭이다. 이 혼란의 실마리를 푸는 것으로서 遊樂과 風流로 일관된 《花田別曲》보다는 그의 漢詩作品에 나타난 절실한 감

25) 「夫人有常性而酒伐之 序而有五倫而酒汨之 倒而有萬事而酒廢之 則酒伐性之斧也 以聖而入者以愚出 以明而入者以昏出 以強而入者以懦出 則酒爲攻心之門也」(自庵集 卷二,癸酉春別殿試作并序)

26) James Drerer; A Dictionary of psychology(penguin Books, 1952), p. 69.

27) 이상섭: 心理主義批評의 方法(서울, 동방학지 1973), p. 121.

정, 그것이 作者의 内面을 이해하는 길이 더 真實된 참모습을 볼 수 있다.

金綵는 流配地에서 쓴 서간문을 볼 때 詩作品을 이해할 수 있는 궁색한 생활태도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외딴 섬에서 풍토병을 얻어 고생하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입치례 처지, 양식과 의복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 그리고 귀양살이 중에 가슴 맷힌 온갖 회포를 그 누구에게도 풀길없는 답답해 하는 심정과 痘이 더 심하여 나날이 기운이 쇠약해지고, 궁벽한 곳에 구류되어 혈혈단신에 이르며 말못할 일도 많다는 구슬픈 사연들이 솔직하게 자기생활을 적고 있었다.²⁸⁾ 결국 자신이 겪는 비참한 유배생활 환경을 통하여 현실의 갈등과 고민으로 그는 더욱 외롭고 초라한人生을 생각할 때 内面的으로 심리적 충격은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花田別曲》의 詩는 그 자체의 풍류성을 묘사한 것보다는 그 속에서의 詩唱하는 醉樂의 기쁨, 花林勝美景의 행복감, 酒酒에의 한 發興景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극에 달하였는데, 이는 現實的인 삶의 불만이나 부조리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그러한 격차를 통해서 〈京洛繁華〉가 아닌 〈石田茅屋〉에의 강렬한 동경을 보인 것이라 여겨진다. 위에서 인용한 漢詩와 書簡文의 내용에 나타나는 비참한 流配地의 현실을 목도하였을 경우 《花田別曲》이 갖는 作家의 内向과 外向의 차이가 더욱더 선명해 질 것이다.

《花田別曲》은 진정한 의미로 金綵 개인의 풍류가 아니다. 그 까닭으로 자신의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찬 現實生活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즉 더욱더 화려한 風流가 비참하고 고통스런 자신의 고초를 더욱 깊게 内面에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人生의 허무함을 귀양지 生活을 통해 더욱 절감하고 이를 탈피하고자 항상 思鄉心을 갖고 사면될 날을 기다림이 그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IV. 結論

지금까지 《花田別曲》을 中心하여 作品에 나타난 作家의 現實認識과 心理的인 갈등의 양상을 몇편의 漢詩와 함께 살펴보았다. 《花田別曲》에 對

28) 自庵集 卷二, 奉安順之書「東風猶峭氣味何如 儕時淹命海島耳 前時朝夕資沉酒 不復前簡果窘甚 惠照亦不妨一晉叙 豈能裕繼 君我無嫌拒之理 何以相奉一暢沉抱餘懷 都在不言中 謹問」

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金綵는 己卯士禍를 당하여 14 年間의 유배생활을 하였는 유학자다. 그가 流配生活을 通해서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花田別曲》에서 士大夫의 風流的인 醉樂을 묘사함으로써 現實의 삶의 모순과 불만을 상대적으로 암시 지적하였다.

그가 講所에서 보는 〈天南勝地景〉 〈品官齋會景〉 〈花林勝美景〉 〈發興景〉 〈勸觴景〉 등으로 士大夫들의 화려한 풍류성을 表現하고 있지만 그의 漢詩에서는 전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우선 詩題만 보더라도 〈思鄉〉 〈送別〉 〈奉別〉 〈還鄉〉 〈歸鄉〉 등의 사면의 기대감과 고독을 달래는 〈秋夜書懷〉 〈獨居〉 등의 詩를 읊고 있어 항상 그는 北쪽의 歸鄉소식 「오기만 기다리며 詩·酒·樂으로 나날을 보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花田別曲》에서 나타난 풍류성의 現實과는 상반된 内向(introversion)과 外向(extroversion)의 表現이라 아니할 수 없다. 《花田別曲》이 갖는 表面的 性格은 어디까지나 心理的으로 자리바꿈(displacement)에서 나온 道學者 金綵의 가식적 심리에서 나온 創作이라 본다. 그가 지닌 원초적인 士林의 면함없는 진실된 性格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花田別曲》은 기묘사화라는 불행을 초래한 정치·사회적인 사건을 배경하여 流配地에서 창작된 叙景體歌의 유일한 流配文學이다. 이 作品은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지은 漢詩 作品과 비교할 때 자신의 불행을 덮어버리고 역설적인 가식의 시가로서 의도적인 창작이라 본다. 당시 人間과 人間의 복잡한 관계,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 治者와 罪人 등의 정치·사회적 배경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슬픔과 비탄, 체념과 충옹의 산물로 창작된 것이다.

人物과 自然, 人間과 人間 사이의 일시적인 풍류는 士林의 정신을 자기 과시욕으로 表現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 차원으로 문제화 하지 않고 주관적인自我에 의해서 다루었으므로 그 내용에는 항상 현실적인 비판과 체념의 슬픈 정서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金綵는 《花田別曲》을 通하여 士大夫의 풍류성을 현실의 생리로 보고 그들의 본성을 나타내었지만 불우한 처지에 있는 그가 자신의 절실한 문제에 몰입함으로서 自我意識의 깊이 있게 作品에 드러내지 못하였다. 다만 《花田別曲》 그 노래 자체를 두고 볼 때 순수한 환상의 대상인 풍류가 아니라 자신을 가식없는 醉樂상태를 적접적인 대상으로 表現했다는 점에서 그의 詩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